3천 피트 높이에 오른 다음의　대형 폭발을 상상해보세요.　연기로 가득찬 비행기를 상상해보세요. 엔진이 딸깍, 딸깍, 딸깍, 딸깍, 딸깍 소리내는 걸 상상해보세요. 무섭게 들리죠. 저는 그날 특별한 좌석에 앉았습니다. 1D석이었어요. 승무원들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였죠. 저는 즉시 승무원들을 쳐다봤고, 그들은 "괜찮아요. 아마 새에 부딪혔을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조종사는 이미 비행기를 선회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리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맨하탄이 보였죠. 2분 후에,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조종사는 허드슨강을 따라 비행경로를 잡았죠. 평소 다니는 항로는 아니었죠. 조종사가 엔진을 끕니다.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비행기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조종사는 세 마디를 했는데, 이제껏 들어본 말 중 가장 냉정한 세 단어였어요. "충격에 대비를 하세요." 전 더 이상 승무원에게 말을 걸 필요가 없었죠. 그녀의 눈을 보았어요. 공포였죠. 인생은 끝났어요.

이제 그 날 제 자신에 대해 배웠던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살아 생전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죠. 그리고 전 다가서고 싶었지만 그리하지 못했던 사람들, 고치고 싶었던 담장, 하고 싶었지만 결코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떠올렸습니다. 나중에 그에 대해 생각해보니,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저는 싸구려 와인을 모아요." 와인이 준비되고 사람이 있으면, 전 와인을 개봉하죠. 저는 인생에서 더 이상 어느것도 미루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긴박함과 그 목적의식이 제 삶을 정말로 바꿔놨습니다.

그 날 제가 두 번째로 배운 것은 이렇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조지 워싱턴 다리가 선명히 보였을 때였어요.저는 생각했습니다. 와,

한가지가 정말 후회됐습니다.저는 괜찮은 삶을 살아왔죠.저의 인간성과 실수 측면에서, 애써온 모든 것을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간성 면에서, 제 이기심이 개입하는걸 그냥 놔뒀죠. 그리고 전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낭비한 시간을 후회했어요. 중요한 사람들을 두고 말이죠. 그리고 제 아내와 친구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히 생각해서 제 삶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훨씬 나았어요. 저는 2년 동안 아내와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더이상 제가 옳다며 따지지 않아요. 행복해지는 쪽을 선택한거죠.

제가 배운 세 번째 것입니다.

마음 속에서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할 때였죠. "15, 14, 13." 강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말했죠. "제발 위로 올려 주세요." 비행기가 산산조각 나길 원하지 않았어요.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추락하고 있을 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아. 마치 평생토록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매우 슬펐습니다. 저는 떠나고 싶지 않았죠. 제 삶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하나의 생각에 맞춰졌습니다. 제가 오직 단 한 가지를 바란다는거죠. 전 단지 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길 원했어요. 약 한 달 후에, 저는 제 딸의 공연에 참석했습니다. 1학년이고, 예술적 재능이 많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요. 저는 몸을 웅크리고, 울어요. 어린아이처럼요. 그로 인해 세상을 모두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실들을 연결해 볼 때, 제 인생에서 중요한 단 한가지는 훌륭한 아빠가 되는 것이라는 걸. 특히, 무엇보다도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좋은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죽지 않는 기적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또 다른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비행을 하는데 여러분의 비행기에 똑같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러지는 마시고,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변화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영원히 살거라 생각하니까 미루고 있던 무엇을 해낼 건가요? 그 안에 존재하는 관계들과 부정적 에너지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요? 그 무엇보다도, 될 수 있는 최고의 부모가 되고 싶은가요?

감사합니다.

(박수)